

작지만 강한 불교학 연구 요람...국제 교류 활발

② 개교 열돌 맞은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올해 개교 열돌을 맞은 금강대는 천태종립 대학이다.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조사가 1973년 8월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을 위해 금강학원 설립을 지시한 것이 개교의 초석이 됐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인 대종 대종사는 상월원각 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1982년 10월 천태종 종단회의에서 금강학원을 설립을 결의했다. 1997년 7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설립을 허가 받고 개교를 위한 종단 내외적인 준비를 마쳤다. 2001년 5월 논산에 금강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췄다. 그 이듬해인 2002년 11월 7일 금강대는 >참된 인간성 함양 > 전문적 지식의 취득 > 창조적 능력의 발휘를 건학이념으로 개교했다. 초대 총장에는 박봉식 박사가 취임했다.

2003년 3월 금강대는 제1회 입학식을 통해 첫 학생들을 맞이했다. 2004년 3월 제2대 총장으로 김유혁 박사가 취임했고, 2005년 8월 불교·복지학부와 통상·행정학부로 학부조직을 개편했다. 2007년 제3대 총장에 성낙승 박사 취임 후 같은 해 8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기초 연구과제 지원 사업으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이하 불문연)의 '올너 필 사본의 카탈로그 작성 및 DB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세기 초 인도학자 알프레드 울너가 수집한 불교학·인도학 필사본인 '올너 컬렉션'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금강대는 3년간 4억5000여 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는 11월 금강대 불문연의 인문학(Humanities Korea)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

2007년 11월, 불문연의 HK 사업 선정은 불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다. 개교 5년차인 금강대가 정부로부터 10년간 80억원을 지원 받는 대형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불문연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학(Humanities Korea) 지원 사업에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를 주제로 선정됐다. 불문연의 이 사업은 불교 고전어와 고전문헌 연구를 통해 문화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을 이해하려는 프로젝트이다.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장은 "금강대 HK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인력과 연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문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문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주 당시 이 프로젝트 책임연구원이었던 안성두 교수(現 서울대 철학과)는 "HK 사업 선정을 계기로 수준 높은 연구자 초빙과 후속 연구자 양성이 이뤄져 금강대 불문연은 10년 내 불교학의 메카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이후 불문연은 2011년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 성료 등 다수의 국제학술대회의 원만한 회향과 우수 인재 전폭적 지원과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국내 불교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2월 제4대 총장에 정병조 박사 취임 후에는 더욱 더 일신하게 됐다.

금강대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작지만 강한 대학' '소수정예 교육'으로 대표되는 대학운영 비전이 있기에 가능했다. 금강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소양을 갖춘 소수의 신입생만을 선발한다. 수는 1~2등급의 상위권 학생만을 모집해 전공분야별로 개인지도 방식과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거쳐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천태종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

불교중흥·인재양성 위해 개교 전교생에게 장학 수혜 불문연 80억원 HK사업 우수 지역과 소통하는 발전 도모 중

받침됐다. 금강대는 종단 지원에 힘입어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자랑한다.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전교 수석자 및 수능성적 우수자에게는 별도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금강대는 해외 6개국 25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세계 명문대학들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다.

금강대는 외국어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재학생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금강대는 재학생 7~8명 당 1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외국인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포함해 학과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하며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익히고 있다.

정병조 총장은 "학기 중 운영하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정병조 총장은 대학 교단에서 늘 학생들에게 '도전'을 강조해 왔다. 금강대는 소수정예 교육으로 10년내 불교학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정총장은 장담했다.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금강대 전경. 금강대는 해외 6개국 25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다. 불교대학원개설, 대전·논산에 평생교육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어학 실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고급공무원 양성을 위한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병조 총장은 "고시반에 들어간 학생들은 스터디룸 제공과 동영상 강의 및 학원수강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숙소경비일체, 도서관입비, 특별장학금 등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금강대의 고급공무원 양성 정책은 성공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황보란 졸업생과 2011년 백승호 졸업생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특히, 금강대는 교육의 국제화 강화와 재학생 학습의지 고취를 위해 매년 해외 우수 명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우수교원 확보도 금강대가 빼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금강대는 개교 열돌인 올 6월 세계 유수 석학을 초청해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또, 올해 중 불교대학원 개설과 대전·논산 지역에 평생교육원을 개설해 불교계 및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지역발전 기여에도 더 큰 몫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조 총장은 " 그동안 금강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며 "개교 열돌인 2012년을 기점으로 능동적인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더욱 내실을 기해 대학 발전과 이미지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학 만들터”

취임 1주년 맞은 금강대 정병조 총장

“금강대의 지난 10년이 씨를 뿌리고 싹을 돋우던 시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사진)은 개교 열돌인 올해, 총장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병조 총장은 3월 14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교10주년과 취임 1주년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정병조 총장은 “지난 한해 금강대 수장으로써 금강대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부실대학 퇴출과 반값등록금 정책이 본격화되는 때, 전교생에게 장학 수혜를 주는 등 ‘소수정예 교육’을 펼치는 금강대가 물을 만났다는 설명이다.

정 총장은 “금강대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작지만 강한 명문대학으로서의 틀을 구축해 왔다”며 “대학 규모, 학생 수, 소재지 등 하드웨어적 핸디캡을 교육시스템과 학생 개별적 관리능력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우월성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대학은 인재양성기관이면서 전인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미래 지식인으로서 한국문화·불교문화를 정당한 인재양성에 목표를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조 총장은 재임기간 중 재학생을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신설은 금강대 이미지를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문·사회에 중심해 특성화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대학, ‘세계 속의 한국, 세계대학 속의 금강대’라는 인식 하에 세계에서 주목받는 금강대가 되도록 활발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동섭 기자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헤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